

보도 시점 2025. 12. 23.(화) 12:00 배포 2025. 12. 23.(화) 10:00 (브리핑 10:30)

고환율 흐름 속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긴 「시장 교란행위 탈세자」 세무조사

① 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기업 ②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
③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④ 외환 부당유출 기업, 총 31개 업체
【관련 국정과제】 65.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

1 세무조사 추진배경

- “짠테크, 무지출 챌린지” 등 필수적인 소비마저 줄이는 것이 유행일 만큼, 고환율* 흐름 속에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,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지고 있어,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 - * 연평균 원/달러 환율이 올해 최초로 1,400원대 돌파 전망
-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*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.
 - * (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) JP모건, 노무라, UBS 2.0% → 2.1% (11월 기준)
- 특히, 우리나라 경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,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인데,
 -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·축·수산물(5.6%↑)과 석유류(5.9%↑)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*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
 - * (전년 11월 대비) ①소비자 물가상승률 2.4%, ②생활물가(식료품 등) 상승률 2.9%(국가데이터처)
- 이와 같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,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,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,
 - 실제로는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(독·과점) 남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.
 -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,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“매점매석**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
 - *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,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대기하는 행위

- 이에 더해, 비거주자의 외화자금을 국내자금과 구분·관리하기 위한 대외계정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유출하여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등
 -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“시장 교란행위”가 발생하고 있어,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
2 세부 추진내용

- 이에,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**물가안정은 민생안정의 시작이자 끝**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기조에 발맞춰,
 - **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,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「시장 교란행위 탈세자」**에 대한 세무조사(2차, 12월)를 전격 실시합니다.
 - 이는, 가공식품 제조·판매 업체 등 「생활물가 밀집 업종 탈세자(55개)」에 대한 세무조사(1차, 9월)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로,
 - 시장 불안을 틈타 더욱 교묘해지는 탈루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,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.
- 이번 조사대상자는 ① 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기업, ②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, ③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, ④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로,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릅니다.
 - 조사대상은 경제·산업동향, 언론보도, 유관기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선정하였습니다.

- ①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「**가격담합 등 독·과점 기업**」 (7개)
- ②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, 부당이득을 챙긴 「**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**」 (4개)
- ③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“숨은 가격인상” 등 「**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**」 (9개)
- ④ 법인자금으로 고가 해외자산 취득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「**외환 부당유출 기업**」 (11개)

[유형 1]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한 「독·과점 기업」: 7개

- 첫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가격담합,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(非)시장적 수단을 이용해,
 -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익을 챙긴 「독·과점 기업」입니다.
 - 이들은, 일부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가격담합을 통해, 시장의 자율적 가격결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.
 - 조사대상 업체는, 담합업체들과 사다리 타기·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여 “나눠먹기식 수주”를 하면서,
 -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 of 반대급부로, 공사 계약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하고,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,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하였습니다.
-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(대법원, 2017두51310)
- 과거 수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, 수도권에 소재한 호텔을 운영하면서,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.
 - 이는,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시장질서를 훼손한 기업이 사주일가 배불리기 등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 - 이번 조사에서는 담합사례금 등 단순히 비용을 부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,
 -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행위 확인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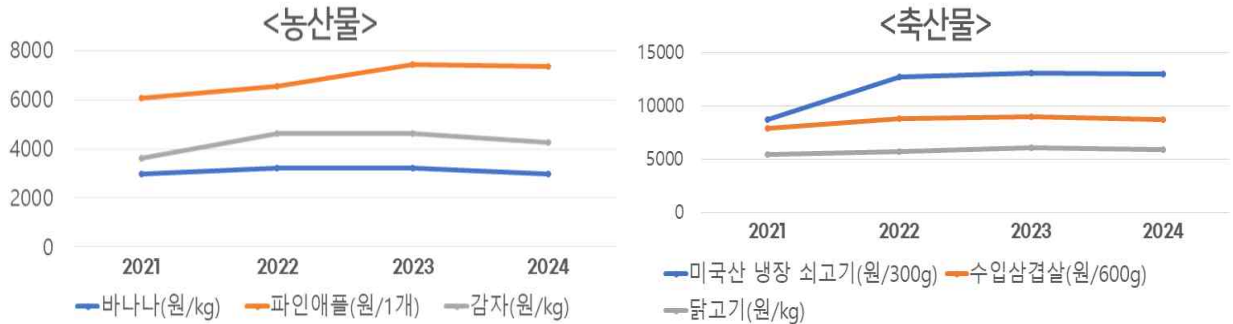
[유형2] 관세인하 혜택은 누리면서, 부당이득은 챙긴 「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」:4개

□ 두 번째 조사대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,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,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「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」입니다.

· **할당관세(Quota Tariff) : 물가안정 및 특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농·축·수산물, 가공식품 원료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(관세법 제71조)**

○ 이들은, 물가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할당관세 정책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.

할당관세 적용 주요 농축산물 가격추이



<출처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축산물품질평가원자료 재구성>

□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,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넣고,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가 하면,

○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·물류·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, 관련 수입대행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하였습니다.


□ 또 다른 업체는,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,

○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재화를 수입한 후, 실제로는 조사대상 업체가 해당 재화를 직접 가져가면서도, 마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.

[유형 3] “숨은 가격인상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「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」: 9개

- 세 번째 조사대상은 치킨, 빵 등 서민들의 지출 비중*이 높은 외식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“용량꼼수”를 통해
 - * '25.1분기 가계 지출 중 식료품 및 외식지출 비중은 29.2% (국가데이터처)
-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만들면서,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「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」입니다.
- 이들은,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높이는 “숨은 가격상승” 행위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.
 - 이 과정에서, 조사대상 업체는 원재료·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는 한편,
 - 사주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, 권리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기도 하였습니다.
 - 그 결과, 불투명한 유통과정 속에서 부풀려진 원가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,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.
- 또 다른 업체는,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가 하면,
 -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장 이용, 명품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,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.

Ⅰ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요 소비자 댓글 (일부 재구성) Ⅰ

소비자 1	와! 이제는 가격에다 제품 용량까지 확인해야겠네	
소비자 2	용량 줄일 땐 몰래 줄이고, 용량 늘릴 땐 사이즈업! 하면서 가격도 올리고	
소비자 3	사실상 소비자에게 고지도 없이 비싸진건데 정부에서 규제 안하나	

[유형 4] 편법적 수단으로 국부를 유출한 「외환 부당유출 기업」: 11개

- 네 번째 조사대상은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여, 고가의 해외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,
- 외화자금의 원활한 유치 목적으로 도입된 대외계정을 이용하여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「외환 부당유출 기업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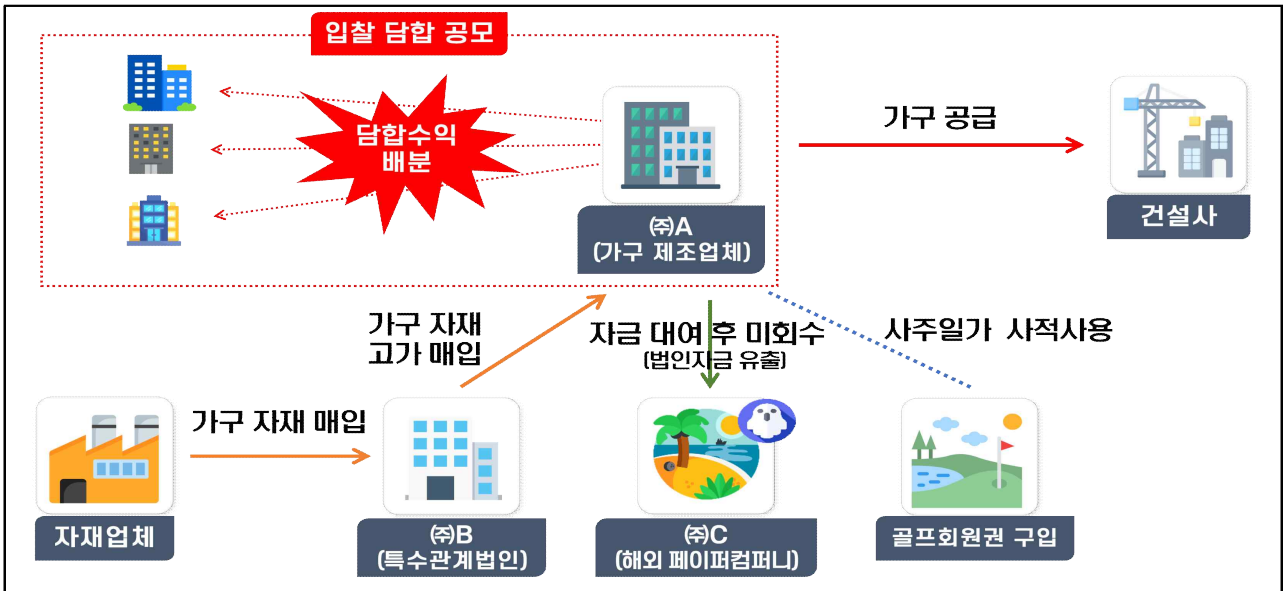
· 대외계정 : 외국인 거주자, 외국법인, 비거주자 등이 외화 예치 목적으로 개설한 예금계정

-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,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단순히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,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, 고급콘도, 호화요트 취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.
- 특히, 이들 중 일부는 100%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,
 -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.
-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,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자들로,
 - 수출대금 등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을 통해 수취하고,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.
 - 이에 더해, 과소신고한 소득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,
 - 법인 명의로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취득하여 사주일가 전체가 거주하고, 내부 인테리어, 가구·가전 구입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등 법인을 사주일가의 사적인 소비 통로로 이용하였습니다.

-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, 물가·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,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.
- 특히, 일시보관, 금융계좌 추적,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, FIU 및 수사기관 정보,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,
- 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기회로, 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.
- 또한,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·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,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·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- 이를 통해,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·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·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준 (044-204-3501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한 (044-204-3517)
<협조>	조사1과	책임자	과 장	구성진 (044-204-3551)
		담당자	서기관	이용후 (044-204-3552)
<협조>	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최지은 (044-204-3601)
		담당자	서기관	문성호 (044-204-3602)
<협조>	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 (044-204-3651)
		담당자	서기관	이규진 (044-204-3652)

사례 ① **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,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**
[가격 담합]



□ **주요 탈루혐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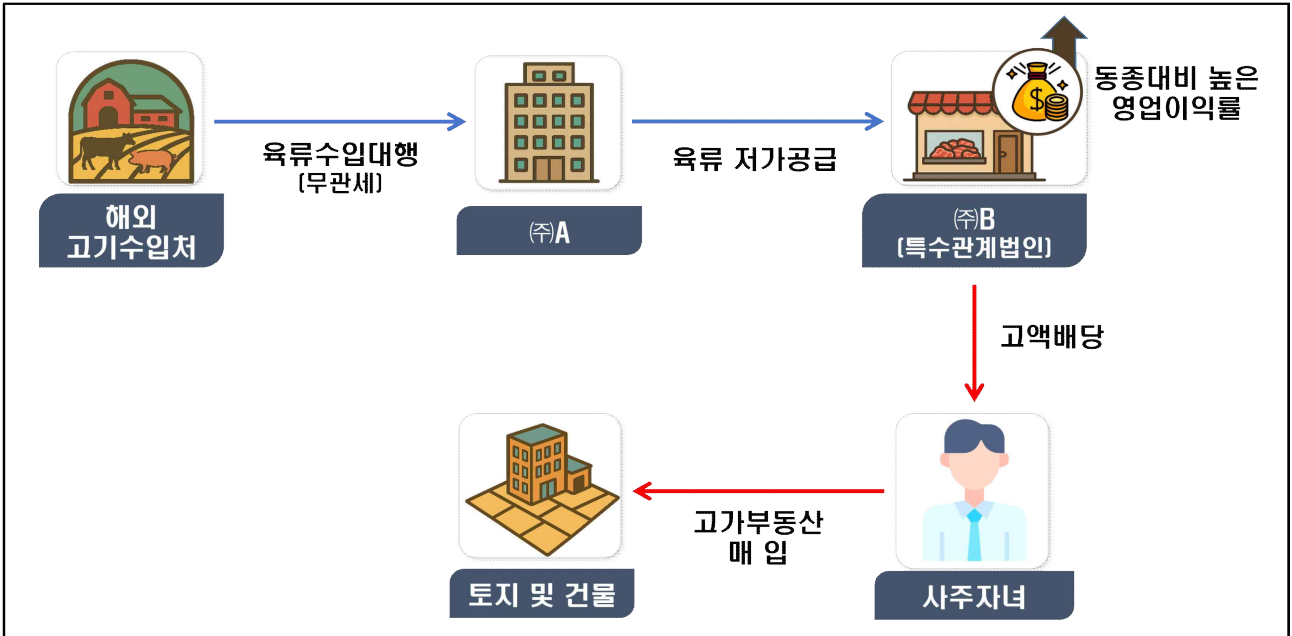
- (주)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,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
 - 담합사례금을 지급·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,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
- 또한,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(주)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 분여
 - 동남아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 (주)C에 자금 대여 후 회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, 실제로는 미회수하는 등 해외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
 - 업무와 무관한 10억 원대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

□ **조사방향**

- 허위 용역 거래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행위,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

사례 ②
[할당관세]

특수관계법인에게 수입육을 저가에 공급하여 이익 분여, 사주 자녀는 고액의 배당을 받아 호화·사치생활 영위



□ 주요 탈루혐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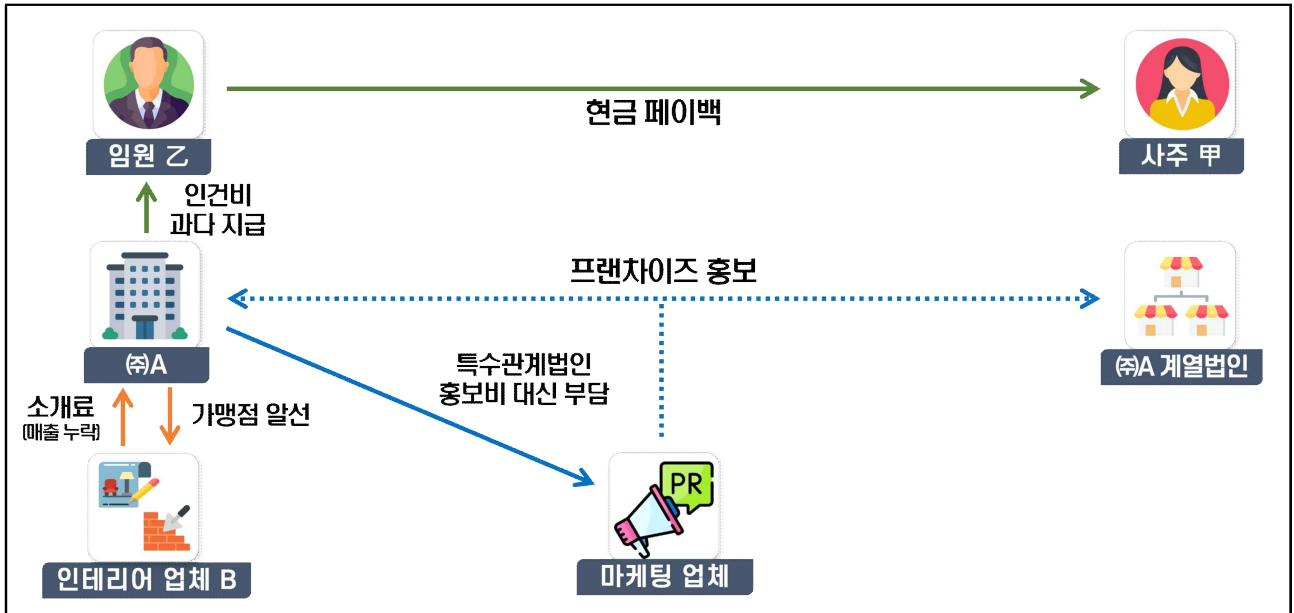
- (주)A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한 수입육 전문유통업체로
 - 매년 일정규모의 육류를 할당관세*를 적용받아 수입하고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(주)B에게 육류를 공급
- *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물품에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
- (주)A는 할당관세를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수입육을 (주)B에게 업종평균 대비 절반의 마진율만 남기고 시가보다 저가에 공급하여 이익을 분여한 결과, (주)B는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
 - (주)B는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하였고, 사주 자녀는 이를 통해 고가의 토지 및 건물을 구매하는 등 호화·사치생활 영위

□ 조사방향

- (주)A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원재료 저가공급 혐의 등 엄정 조사

사례 ③
[슈링크플레이션]

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의 광고선전비 대신 부담,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소개비 수입신고 누락



□ **주요 탈루혐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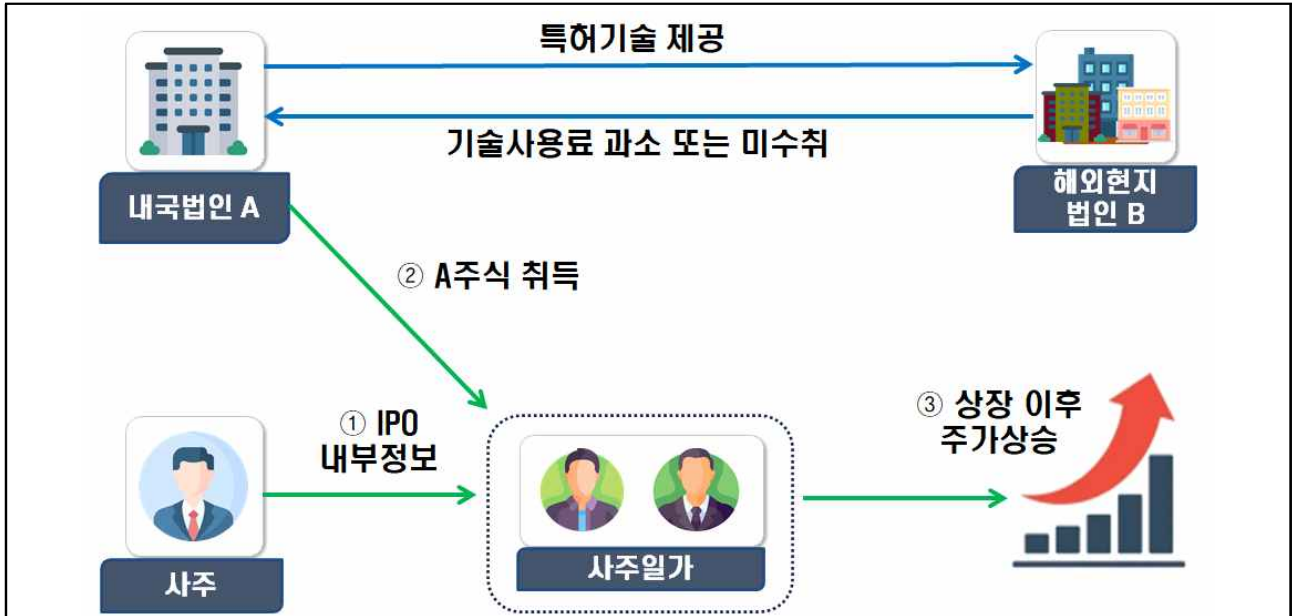
- (주)A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,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음식 중량을 줄이는, 숨은 가격상승 행위(슈링크플레이션)로 이익 발생
- (주)A는 프랜차이즈 홍보와 관련한 광고선전비를 계열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나,
 -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 원의 광고선전비를 (주)A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
- 또한, (주)A는 (주)B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결해 주며 소개비를 받고 있으나,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해 거래를 은폐하여 매출 누락
 - 임원 乙에게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, 사주 甲은 이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부당유출

□ **조사방향**

- 공동경비를 대신 부담하고,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(주)A와 사주 甲에 대해 철저히 조사

사례 ④
[외환유출]

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등 외화 자금 국내 미환류, 기업상장에 따른 사주일가 이익 편취



□ **주요 탈루혐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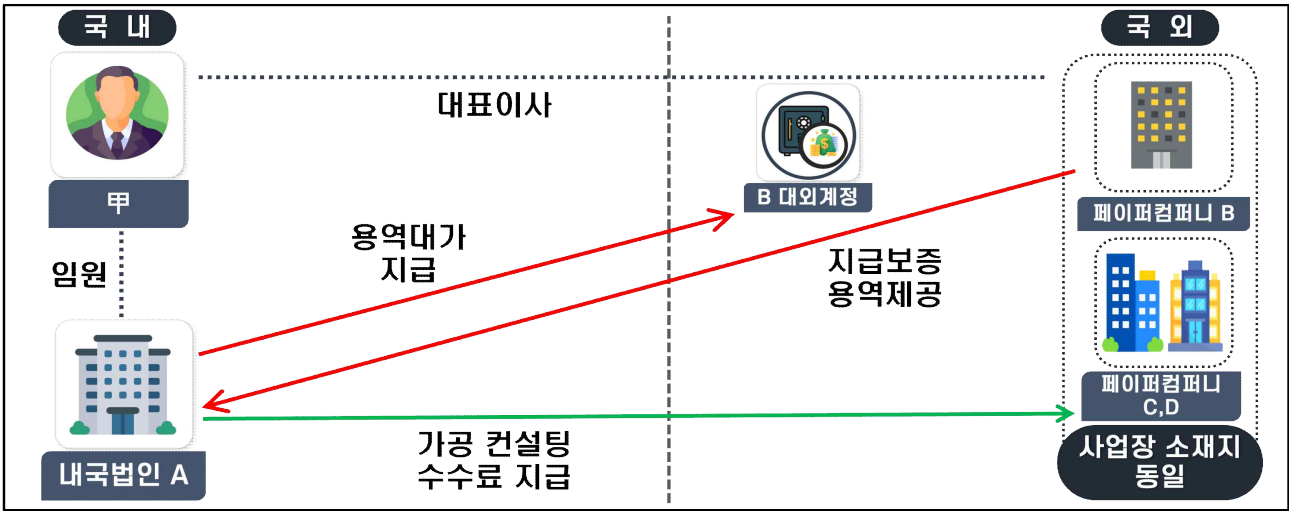
- (주)A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,
 - 특허권 등 다수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제품 생산을 위해 해외현지법인 B를 설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등 원천기술 제공
 - (주)A는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기술사용료를 수취하기로 하였으나,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대가를 받아 약 1,500억 원에 상당하는 외화자금이 국내로 미환류
- 또한, 사주일가는 사주로부터 (주)A의 IPO(기업공개)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고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취득
 - 상장 이후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는 주가흐름을 보이면서,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, 증여세 신고 누락*

*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)

□ **조사방향**

-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하고,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(주)A와 사주일가에 대해 철저히 조사

사례 ⑤ [외환유출]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대외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소득활동을 은닉하고 외환을 유출



□ **주요 탈루형의**

- 내국법인 A는 □□□□ 업무단지의 개발사업비 조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최대주주인 외국법인 B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 받고, 그 대가로 약 70억 원을 B가 보유한 대외계정*을 통해 지급
 - * 비거주자, 외국인 거주자 등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자금 예치 목적의 예금계정으로, 외국환거래규정상 대외계정으로의 송금 및 수취는 국외 거래처럼 취급
- A는 국내에서 대외계정으로 이루어진 송금을 국외 간 거래로 처리*함으로써,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노출 없이, 외환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
 - * 대외계정(국외) ↔ 대외계정(국외) 간 외환 송금은 국외 외환거래로 별도 관리·감독 無
- B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, A의 임원 甲이 B의 대표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관련 회계·재무자료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임에도 소득신고 사실은 전무
- 이에 더해, A는 B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국외 페이퍼컴퍼니 C, D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

□ **조사방향**

-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소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고, 고액의 외환을 국외 유출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